

3M, 한국에서 R&D · 설비투자 병행

순수 로컬생산비율 7.5% ... 2007년까지 매출 연평균 20%이상 신장

한국3M이 “다양한 기술과 혁신의 기업(Diversified Technology Company)”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한국3M은 1월14일 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술기업으로의 도약을 선포하고 3M의 성장 비결을 공개했다.

간담회에서 Joaquin Delgado 사장은 “한국3M의 성공은 고객이 성공하도록 비즈니스를 해온 덕분이며, 특히 쓰리엠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 산업에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3M은 아직까지 문구 및 가정용품 회사로 많이 인식돼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업재가 매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특히, 전자, 핸드폰, 자동차 등 국내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군에 많은 제품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3M 제품들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혁신적인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한국3M은 2004년 R&D 및 제조시설에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도 발표했다.

매출목표도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한 948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직원 수도 113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Joaquin Delgado 사장은 “한국3M의 성공은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인력에 대한 투자와 신제품 개발, 시장개척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2007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매출 신장추세를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3M은 1977년 미국 3M과 두산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됐으며 1996년 100% 미국 3M의 투자기업이 됐다.

2003년 말 기준으로 8개 사업본부, 나주공장, 평택 물류센터, 수원 기술연구소에 993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국내에서 활발한 투자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15>



† 한국3M Joaquin Delgado 사장